

부산 흥법사 초등부 템플스테이

# “당당한 불제자 되길”

출가학교 시스템, 편지쓰기·사경 등 호응 가족·외국인 대상 매월 정례화 예정



부산 흥법사에서 열린 초등학생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금강경>을 사경하는 모습. 참가 어린이들은 낯선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도심 진지함을 일지 않았다.

“이소현 행자님- 범명은 지혜심입니다. 방수종 행자님의 범명은 무운입니다.”

1월 30일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법당에서 899일 동안 1기 흥법사 초등부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49명의 초등학생들이 차례차례 수계증을 받고 있었다. 엄격한 규율과 뉘그러한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일정 끝에 범명을 받아든 행자들의 눈빛과 얼굴은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108배 후 수계식을 갖고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다진 행자들에게 법명이 주는 의미는 각별했다. 수계증을 받아들이고 범명을 확인하는 행자들에게 1월 23일 첫날부터 범명을 받기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했다.

첫날, 즐거웠던 여름불교학교를 생각하며 흥법사를 들어선 행자들은 수련복으로 갈아입자마자 행자로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을 듣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첫날과 둘째 날은 참회의 절로 다 보냈을 정도로 많은 절을 했다. 떠들다가, 친구와 장난치다, 차수를 하지 않는 등 갖가지 이유로 참회의 108배가 이어지자 행자들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형제, 혹은 친구끼리도 꼬박 꼬박 경어를 사용하며 새벽예불,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발우공양, 한문으로 배운 <계초심화인문> <금강경> 독송, 사경, 예절 수업 등 낮은 용어, 낮은 생활들에 적응해 나갔다.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돼 밤 9시에 끝이 나는 하루 일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했던 발우공양도 익숙해지고 매일 계속된

108배로 절도 몸에 익고 스님의 <계초심화인문>의 어려운 한자와 내용도 어느새 마음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49명의 도반들은 단 한명의 탈락자도 없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수행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민주원(초음초 6) 행자는 “어린이 법회, 수련회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이 제일 힘들었다”면서 “스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수행하시는 줄 몰랐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법회에 다녀서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수(하남초 6) 행자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음식도 남기지 않고 예의를 잘 지키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된 흥법사 초등부 템플스테이는 몇 달 전 이미 참가자가 마감됐을 정도로 기대가 높았다. 특히 가마승 채원, 발우공양, 등산, 참선, 염주 꿸기, 사경, 부모님께 편지쓰기, 율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심산 스님은 “일반 수련회와는 차별화되는 철저한 출가학교 시스템으로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행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걸 보고 기뻐하고 대견했다”며 “앞으로 중고등부 템플스테이도 진행해서 어릴 때부터 수행자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불제자를 길러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흥법사는 방학 기간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 외에도 가족,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를 3월부터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051)508-0345

글·사진=천미희 기자

## 양산시,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추진

### 학술회·공청회 등 계획

양산시와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나 영산대 호텔관광대학 정무형 학장 등에 의해 가능성을 타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문화관광특구는 지난해부터 영산대 컨벤션관광연구원이나 통도사를 중심으로 불교성지화와 관광루트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이후, 지역 정·관·학계가 관심을 보이면서 탄력을 얻고 있다.

천미희 기자

### 표충사 신임 주지 청운 스님 진산식

밀양 표충사는 1월 29일 표충사 설법전에서 신임 주지 청운 스님(사진)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상조 밀양 시장,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혜 스님, 통도사 전계사 중산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신허 스님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다종 5다, 육법공양, 취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 염불공양모임 장학금 전달

불교TV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은 2월 2일 불교TV 염불공양모임 사무실에서 제6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하성심 회장을 비롯 염불공양 회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는 대학생 김지연 학생회 3명, 고등학교 지한범 학생회 7명에게 총 5백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성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몰아닥치고 있지만 지금의 고통을 나를 성숙시키는 거름으로 알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불제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불교TV 염불공양모임은 1996년 염불공양 봉사단을 주로 하는 봉사단체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수해복구,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후원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은 신심 돈독한 청년 불자들을 선별, 불교 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엄마와 함께 '요리! 조리!'



부산 물문대중합사회복지관은 1월 29일 '엄마와 함께 하는 요리! 조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앞치마를 두른 엄마와 아이들은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들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엄마의 손을 잡고 참가한 아이들은 평소 집에서 가질 수 없던 요리가 신이 났다. 요리를 하면서 반이 넘게 먹어 치우는 아이도 있고, 조그만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이도 보였다.

함께 요리를 하는 엄마들의 표정도 밝았다. “햄버거는 아이들이 잘 먹는 음식인데 만들 엄두를 못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가 이제 사 먹지 않고 아이와 함께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프로그램은 참가자 30명이 모여 앉아 함께 먹은 식사 시간은 이웃간의 정겨운 대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모양 복지사는 “방학 중에 엄마와 아이들의 대화를 늘리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주고 싶어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대덕 스님 100명, 100일간 법문

대구 수성구 파동 법당(사주지 실상)가 제14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한다.

1994년 첫 백고좌대법회 이후 14회째를 맞는 올해 백고좌대법회의 주제는 대승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 그리고 계율이다.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백고좌대법회는 법랍 30년 이상의 대덕 스님 1백 명이 매일 1품씩 심도 있는 법문을 하고, 화엄경 중간에 일주일간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팔상성도에 대한 법문을 할 예정이다.

세 번의 108배 기도 후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봉행되는 법회는 2월 24일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前 조계종 교무원장 압도,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대전 무상사 주지 무심, 파계사 율원장 철우,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이 차례로

법문하며, 前 원로회의 부의장 원명, 동화사 강주 해월, 통도사 승가대학장 해남, 해인사 울주 종진 스님 등을 비롯해 경주 동국대 교수 지호, 법공, 도오 스님과 동국대 선학과 교수 성본,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운문승가대 학감 일진 스님 등이 강료법을 설한다. 이밖에도 해인선원장 해운, 용주사

주지 정락, 법왕사 회주 정무 스님 등도 법사로 나선다. 백고좌 대법회는 100일 동안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 국민인연을 기원하는 호국불교 법회의식으로, 신라시대부터 널리 행해지다가 조선시대 이래 맥이 끊어진 것을 법왕사가 부활시켜 1994년부터 이어왔다.

이번 백고좌대법회기간에는 수행 방편으로 불자들이 법화경 사경을 할 수 있도록 8권의 법화경 사경노트도 배포한다. (053)766-3747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 대불련 대경동문, 광병원 보현회 '불자의집' 의료봉사



“다리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 주셔서 잘 봐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월 29일,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도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에는 저소득층 노인과 노숙자들이 그동안 찾아왔던 동증을 호소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 동문회(회장 임혜수)와 광병원 불자회인 보현회가 함께 지역 노숙자 및 노인 50여명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것(사진).

이날 의료봉사활동에 참가한 의료진은 광병원 광동철 원장, 대불련 대경지부 임혜수 동문회장을 비롯해 모두 10여명. 넓지 않은 '불자의 집' 입구에 접수창구가 설치되고, 방에는 내과와 정형외과가 마련되고 한쪽에는 주사실도 마련됐다.

이날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노숙자와 지역 노인들. 손수레를 밀며 폐지를 주워 모으는 일을 하는 정희순(70) 할머니는 작년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아 왔다. 게다가 고령으로 인한 청력장애까지 있어 의사소통이 매우 힘든 상태. 그러나 보현회 회원들은 할머니 옆에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에 적극 나섰다.

광병원 의사와 간호사 15명으로 구성된 보현회는 이날 적극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 1. 남경중의과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선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2월 1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6. 남경중의과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과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불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 해인 스님 남경중의과대학 방문 상호 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과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과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 설립, 분교장 취임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이병용(李秉鎭,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과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鎮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敎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과대학 項주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과대학 項주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 11일-11월 17일 남경중의과대학 王瑞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과대학 28명 본과 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과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과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과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외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